

**The Gospel of Mark: Sermon Notes**

Sermon 14

Title: "The parable of the sower"

Scripture: Mark 4:1-12

Date preached: November 27th 2022

**Scripture: Mark 4:1-12**

**1** And again He began to teach by the sea. And a great multitude was gathered to Him, so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n the sea; and the whole multitude was on the land facing the sea. **2** Then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said to them in His teaching: **3** "Listen! Behold, a sower went out to sow. **4** And it happened, as he sowed, *that* some *seed* fell by the wayside; and the birds of the air came and devoured it. **5** Some fell on stony ground, where it did not have much earth; and immediately it sprang up because it had no depth of earth. **6** But when the sun was up it was scorched, and because it had no root it withered away. **7** And some *seed*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and choked it, and it yielded no crop. **8** But other *seed* fell on good ground and yielded a crop that sprang up, increased and produced: some thirtyfold,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

**9** And He said to them,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10** But when He was alone, those around Him with the twelve asked Him about the parable. **11** And He said to them,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but to those who are outside, all things come in parables, **12** so that

'Seeing they may see and not perceive,  
And hearing they may hear and not understand;  
Lest they should turn,  
And *their* sins be forgiven them.'

**1**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바닷가에 그대로 있었다. **2**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3** "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4**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6**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맺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10**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자. **11**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12**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You will remember that we finished chapter 3. The chapter concluded with two very different groups of people coming to find Jesus. Mark skilfully weaves their two stories together. I read one commentator saying it's rather like having a split screen on the television. Sometimes for sports events such as golf you can see the top two golfers playing at the same time but in different locations on two different screens. The commentators switch between the two. This is in some ways what Mark is doing here. Each group had radically different views on the Lord Jesus. One group

thought that the He was “mad.” The second group thought He was “bad.”

The first group was His own family. This group comprised His mother Mary, His brothers and maybe some of His sisters. They had travelled the 30 or so miles from Nazareth because they were concerned for the Lord's well-being. They believed that He was so busy sharing the gospel and healing sick people that He was neglecting to eat or care for Himself. Their conclusion was that He was out of his mind. Or that He had lost His senses. Therefore they wanted to “take a hold of Him,” get Him to see sense and stop what He was doing. When they arrive the large crowds that constantly surrounded Jesus meant they could not get close to Him. As a result they stood outside the house and called to Him. Clearly they thought that He would stop what He was doing to come out and speak to them. They were His immediate family after all. The family in Jewish culture was and continues to be very important. So I am sure all those present with Jesus expected that He would be respectful and go outside to speak to His family. However, when Jesus is alerted by others to their presence His response is interesting. He doesn't hurry outside to speak to them. Instead He uses the situation as an occasion to teach a spiritual lesson.

Looking around at His disciples and other followers He says to them,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What is the lesson He is teaching here?

The lesson is that when we are adopted into God's new family through our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things change. God's family is now to take priority over all things including our biological families. This is because when viewed from an eternal perspective our brief time here on earth, and our earthly families are only temporary. We should attempt to live whilst we are here on earth in a way that is pleasing and honouring to God. This is achieved when we live according to God's will.

Also we are to remember that adoption into God's family is purely and solely a work of God. The Jews of Jesus day thought that righteousness came through good works and following prescribed ways of living. Others thought they were saved simply because they were Jews who were part of Abraham's line. Jesus words are a reminder to us that we do nothing to earn or merit our salvation it and we certainly do not attain it because of who we are or whose line we follow.

We should not misunderstand what Jesus is teaching here. Our human family and the close relationships that exist between are beautiful and necessary things. God after all is the one who created and provided those relationships. So Jesus is not minimizing the importance of family relationships. Rather, He is emphasizing that having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by obeying His will is the most important.

The second group Mark tells us about were scribes who had been sent down from Jerusalem. They had been purposefully sent by the Jewish authorities to make an assessment on the Lord Jesus. They were to pass judgment on how it was that He was able to do all the amazing things He was doing. In particular, they wanted to know how He was able to successfully cast out demons.

Their conclusion was that the Lord Jesus was able to do these things because He was Himself possessed by Satan and was on Satan's side.

Jesus challenges their assertion through a series of parables. Firstly He asks them to think rationally about the issue. How can Satan be fighting against himself? If Jesus were on Satan's side then casting out demons would be damaging to Satan's cause. If an army begins attacking it's own forces that does not make it stronger it actually makes it weaker.

He then asks them to think about taking something from a strong man's house. In order to take something you would need to first disable or bind the strong man. If he were not disabled he would oppose you and stop you taking the item. Jesus is saying He is the one disabling the strong man; Satan. He is then able to take those Satan has bound and made captive and set them free.

Jesus then goes on to give the scribes a stern warning. God is merciful in forgiving all types and classes of sin. There is however a sin that is unpardonable or unable to be forgiven. It is the sin of blaspheming the Holy Spirit. Although there is some debate on what exactly Jesus meant my understanding is as follows. Jesus is accusing them of saying that His amazing work of healing and casting out demons is a work of Satan rather than a work of the Holy Spirit. What made the scribes sin much worse was that they really knew the truth but denied it. They did not want to admit to what all the evidence indicated. That this was the Messiah and that He wa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e unpardonable sin then is saying that what Jesus was doing was the work of Satan. Since Jesus is not physically present at this time I do not believe that we can commit the unpardonable sin today. This was where we concluded last time.

오늘의 성경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3 장을 끝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오는 매우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로 끝납니다. Mark 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능숙하게 엮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분할 화면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한 해설자를 읽었습니다. 때때로 골프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상위 2 명의 골퍼가 두 개의 다른 화면에서 동시에 다른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자는 둘 사이를 전환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Mark 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각 그룹은 주 예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분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30 마일 정도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보는 일이나 음식을 먹는 일을 소홀히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가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그는 감각을 잃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이해하게 하고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멈추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을 에워쌌던 큰 무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집 밖에 서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분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일을 멈추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분의 직계 가족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존경심을 갖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가족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존재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때 그분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밖으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상황을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을 둘러보시며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입양될 때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의 생물학적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짧은 시간과 지상의 가족은 단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의가 선행과 정해진 생활 방식을 통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히 아브라함 가계의 일부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계보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 가족과 아름답고 필요한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 제공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마가가 말하는 두 번째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평가하기 위해 유대 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가 하고 계신 모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성공적으로 쫓아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주 예수께서 친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련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주장에 도전하십니다. 첫째, 그분은 그들에게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자신과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탄의 편에 계셨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사업에 해가 될 것입니다. 군대가 자신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고 실제로는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강한 남자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갈지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무언가를 취하려면 먼저 강한 사람을 무력화하거나 결박해야 합니다. 그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는 당신을 반대하고 당신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강한 자를 무력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 그러면 사탄이 결박하고 사로잡은 자들을 잡아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와 부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내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놀라운 병 고침과 귀신 내어쫓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비난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더 죄를 짓게 만든 것은 그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가 지적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며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린 곳입니다.

### **Introduction**

Mark's gospel as we have said before is characterised by almost constant action. It is an account that is fast moving and full of incident. However today we begin the first of three extended teaching sections that Mark records. In this first section Jesus will give three parables that describe the character of the messianic Kingdom. Let's look at verse 1.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마가의 복음은 거의 끊임없는 행동이 특징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사건이 많은 계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Mark 가 기록한 세 개의 확장된 교육 섹션 중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1 절을 보겠습니다.

**1 And again He began to teach by the sea. And a great multitude was gathered to Him, so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n the sea; and the whole multitude was on the land facing the sea.**

Mark again picks up the action with the Lord Jesus down on the shore line. Once again He is surrounded by large crowds. As we talked about previously the people believed that Jesus had the power and authority to heal. Therefore they flocked to Him in great numbers. In order to be healed one had to attract the Lord's attention and receive His healing word. But also it seems in many cases it was sufficient to simply touch Him as He passed by. As a result the crowds no doubt jostled and pushed in their eagerness to get to Jesus. This was a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 for both Jesus and the crowd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se the danger He climbed into a boat, had it rowed out a short distance and preached to the people from there. It was the perfect solution to the problem. What is it that Jesus preached? Let's read on and find out.

Mark 는 다시 해안선에서 주 예수와 함께 행동을 취합니다. 다시 한 번 그분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권세와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관심을 끌고 그분의 치유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에 그분이 지나가실 때 그분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무리는 틀림없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억누르고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군중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에 오르셔서 짧은 거리에서 노를 저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읽고 알아봅시다.

## **2 Then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said to them in His teaching:**

Mark tells us here that Jesus employs a different approach to His teaching. Prior to this it would seem as if He had taught openly and directly. However over time He encountered increased scorn and confrontation over what He was teaching. Therefore He switches to teaching using a form of illustration known as a parable. A general definition of "parable" is a simple story used to illustrate a moral or spiritual lesson. The "Got questions website" defines a parable as, "a fictional yet realistic story that illustrates a spiritual truth." You may also have heard the popular definition of a parable as being "an earthly story with a heavenly meaning."

Let us take a moment here to examine a well known parable from the Old Testament so that we can see how they work.

This parable is taken from the life of King David. David who has committed some terrible sins is confronted by the prophet Nathan. Nathan has been sent by God to deliver the following parable (message to David).

마가는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마치 그분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경멸과 대립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비유로 알려진 비유의 한 형태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전환하십니다. "비유"의 일반적인 정의는 도덕적 또는 영적 교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Got Questions 웹사이트"는 비유를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허구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로 정의합니다. 또한 비유가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약에서 잘 알려진 비유를 살펴보고 그 비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다윗 왕의 삶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예언자 나단과 대면하게 됩니다. 나단은

다음 비유(다윗에게 전할 말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Then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And he came to him, and said to him: "There were two men in one city, one rich and the other poor. 2 The rich *man* had exceedingly many flocks and herds. 3 But the poor *man* had nothing, except one little ewe lamb which he had bought and nourished; and it grew up together with him and with his children. It ate of his own food and drank from his own cup and lay in his bosom; and it was like a daughter to him. 4 And a traveler came to the rich man, who refused to take from his own flock and from his own herd to prepare one for the wayfaring man who had come to him; but he took the poor man's lamb and prepared it for the man who had come to him."** (2 Sam 12:1-4)

On the surface it is a story about a poor man whose beloved pet lamb is cruelly taken from him by a rich man. Of course when David heard the story he understood it very differently. Nathan had cast the ewe lamb story down next to the real story of David and his sins regarding Bathsheba and Uriah. David was struck because he saw the parallels between his own actions regarding the ewe lamb (Bathsheba) and the poor man's (Uriah) suffering. This example illustrates the power of the parable. Typically, a parable begins innocently as an illustrative picture that arrests our attention and arouses our interest. No doubt David would have refused to listen to Nathan directly confront him. But the parable Nathan tells arouses David's interest and "sneaks up" upon his conscience. So in effect the parable takes the form of a mirror in which he suddenly sees himself. This shows how effective a parable can be in presenting truth in a none confrontational way.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애완용 양을 부자에게 잔인하게 빼앗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David 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나단은 암양양 이야기를 밋세바와 우리아에 관한 다윗과 그의 죄의 실제 이야기 옆에 던졌습니다. 다윗은 암양양(밋세바)과 가난한 사람(우리아)의 고난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유사함을 보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예는 비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우리의 주의를 끌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시적인 그림으로 천진난만하게 시작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은 나단이 직접 대면하는 말을 듣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이 말하는 비유는 다윗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양심에 "잠시 잠입"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비유는 그가 갑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대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The word parable derives from the Greek word *parabole*. This word describes a situation in which something is "thrown or cast alongside something else." Parables then are designed to teach truth through a comparison of the two different situations in view.

We have around 30 parables given by Jesus recorded in the synoptic gospels. There are no parables in John's gospel. Jesus' parables were stories that He used as teaching aids that were "cast alongside" a truth in order to illustrate a spiritual truth. Some of Jesus parables are long stories, others are short similes, metaphors, analogies, or proverbial sayings. Parables did not originate with Jesus. They were in fact frequently used by Rabbis and other teachers in their preaching. Jesus however refined the art form and used it with great skill. There was a very good reason for this change of teaching approach. He wanted his teaching to remain an enigma or a mystery to those outside the kingdom. Jesus parables then actually served two purposes. Firstly the parables revealed truth to those who had a heart to hear it. Secondly they concealed the truth from those who were hard-hearted and had rejected Christ and His message. Let us look at this first parable now.

비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parabole* 에서 파생됩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가 "다른 것과 함께 던지거나 던져지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비유는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다른 상

황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가르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약 30 개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진리를 “겉에 던진” 교육 보조 도구로 사용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의 비유 중 일부는 긴 이야기이고, 다른 비유는 짧은 직유, 은유, 유추 또는 속담입니다. 비유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랍비와 다른 교사들이 설교할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술 형식을 세련되게 다듬어 훌륭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교수법을 변경한 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왕국 밖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나 신비로 남아 있기를 바랐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실제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먼저 비유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 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진리를 숨겼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Listen! Behold, a sower went out to sow. 4 And it happened, as he sowed, *that some seed fell by the wayside; and the birds of the air came and devoured it.***

The illustration Jesus gives would have been easily relatable to His original audience. Probably many of them had sown seeds personally or at least seen a farmer scattering seeds. But his choice for this particular story also has a deeper more significant meaning. Jesus here is giving us a lesson about how the Kingdom grows and flourishes.

That Jesus spoke about a familiar and relatable subject reminds us that when giving people truth we are to use language and expressions that are understandable and applicable to our hearers. Too often Christians can assume that non-believers know what we mean when we use bible terms or Christian expressions. I remember once speaking to a Korean Christian and asking them if they had shared their faith with their mother. Their mother was sick at the time and I thought what comfort they could derive from knowing what Jesus did for them. The person said to me that it wasn't easy to share their faith, the reason was because their mother had no idea who Jesus was.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conversant in the language and culture of “Christianize.” When I speak to you for example about the trinity, God's grace and redemption you understand what I mean. But when speaking to people who are not speakers of “Christianize” we may need to explain our terms or use illustrations that our hearers better understand. This is where Jesus was such an effective teacher. He could convey deep theological insights in easily understandable ways. Jesus was speaking to a largely agrarian populace so His story reflects that. Today our illustrations might involve cell phones, social media or city life. Let us think then about the context for this parable.

We have an expression in English for someone who can successfully grow plants and flowers. We say they have “green fingers.” I wish I could claim to have green fingers. I have several flower pots in my office and every year I plant seeds in the hope that they will grow and brighten up my work space. Sadly the plants never seem to last long. They flourish briefly, then wither and die. I have concluded that I have “black fingers.” Fingers of plant death. I'm sure the man in Jesus story is a farmer with “green fingers.” Since your livelihood in the ancient world depended upon what you could grow you could not afford to have “black fingers.”

So picture in your mind a farmer walking down their field with a bag of seed tied around their waist. Every few steps they dip their hand into the bag take out a handful of seed and scatter it. Today of course, especially in the mechanised west no one sows in this way. We have very expensive machines that systematically plant the seeds to ensure a maximum yield. But still today in the developing world people still follow a similar approach to the man in Jesus parable. Walking up and down the length of the field and manually throwing the seeds onto the ground. There is some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land was ploughed before sowing or after sowing. The farmer in Jesus story appears a little haphazard or wasteful. However if the ploughing took place after the seeds

were scattered then it might help explain why some of the seeds were thrown in unlikely places. If the land were already ploughed we might expect that the farmer would be a little more careful. No farmer could afford to scatter 75% of their seeds where they would not produce a crop. In reality farmers in the ancient world were not so wasteful. This of course is not Jesus point here as we will see later.

The first of the seeds sown fall onto the wayside or the path. As you know soil that is continually walked over becomes compacted and hard. It is difficult for seeds to burrow down and take root. Therefore the seed lay on the top of the path until it is seen and then eaten by passing birds. Let's see what happens to the next seeds.

예수께서 하신 예는 그분의 원래 청중과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씨를 뿌렸거나 적어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이야기에 대한 그의 선택은 또한 더 깊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왕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번영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친숙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무 자주 기독교인은 우리가 성경 용어나 기독교 표현을 사용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한국 기독교인과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와 신앙을 나누는 적이 있는지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들의 어머니는 아팠고 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면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들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그 이유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기독교화"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용어를 설명하거나 청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토록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삽화에는 휴대폰, 소셜 미디어 또는 도시 생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문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식물과 꽃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녹색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녹색 손가락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화분이 몇 개 있고 매년 씨앗이 자라서 작업 공간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슬프게도 식물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잠시 번성했다가 시들어 죽습니다. 나는 내가 "검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물 죽음의 손가락. 나는 예수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가 "녹색 손가락"을 가진 농부라고 확신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당신의 생계는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검은 손가락"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농부가 허리에 씨 한 봉지를 묶고 밭을 걷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몇 걸음 걸을 때마다 가방에 손을 담그고 한 줌의 씨앗을 꺼내 뿌립니다. 물론 오늘날, 특히 기계화된 서부에서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대 수확량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씨앗을 심는 매우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에게 비슷한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밭의 길이를 위아래로 걷고 손으로 땅에 씨를 던집니다. 파종 전이나 파종 후에 경작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는 다소 무모하거나 낭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흩어진 후 에 쟁기질을 한다면 일부 씨앗이 의외의 장소에 던져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이 이미 경작되어 있다면 농부가 조금 더 조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곳에 종자의 75%를 뿌릴 여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의 농부들은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예수님의 요점이 아닙니다. 먼저 뿌려진 씨앗은 길가나 길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밟아 가는 흙은 알다시피 다지고 단단해집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은 그것이 보일 때까지 길 꼭대기에 놓여 있다가 지나가는 새들에게 먹힙니다. 다음 씨앗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 Some fell on stony ground, where it did not have much earth; and immediately it sprang up because it had no depth of earth. 6 But when the sun was up it was scorched, and because it had no root it withered away.**

This group of seeds fall onto stony or rocky ground. There is not much soil in such places and so the plants roots cannot burrow deep and make the plant secure. Therefore when the heat of the sun touches the plant it easily withers away. Let us find out about the next group of seeds.

이 씨앗 그룹은 돌이나 바위가 많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곳은 흙이 많지 않아 식물의 뿌리가 깊숙이 파고들어 식물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양열이 식물에 닿으면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다음 씨앗 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 And some seed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and choked it, and it yielded no crop.**

The next group of seeds falls among thorns or weeds. Any gardener or farmer will tell you that weeds are a big problem. This is because weeds choke out other plants. They occupy the space that other plants need to grow. They also take away water that young plants need, and they also extract essential nutrients from the soil. So the seeds that are sown among thorns or weeds cannot get established and grow. Let us turn to the final group of seeds.

다음 씨앗 그룹은 가시덤불이나 잡초 사이에 떨어집니다. 모든 정원사 또는 농부는 잡초가 큰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잡초가 다른 식물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또한 어린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을 제거하고 토양에서 필수 영양소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나 잡초 사이에 뿌려진 씨는 짝이 트고 자랄 수 없습니다. 씨앗의 마지막 그룹으로 돌아가 봅시다.

**8 But other seed fell on good ground and yielded a crop that sprang up, increased and produced: some thirtyfold,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

The final group of seeds proves to be a success. It falls on good soil that means it can take root, grow and produce a crop. Jesus includes as part of the parable the quantity of yield produced. This is important. All of this group of seeds produced a crop, but not all produced to the same degree. Harvest was measured in Jesus day as a ratio of yield to seed. Jeremias concluded that a harvest of seven-and-a-half fold was normal, and a tenfold harvest was good. A harvest of thirty, sixty, and a hundredfold would therefore be extraordinary. A harvest of a hundred fold means that the seed that the farmer planted yielded 100 times the amount that was sown. Interestingly we do see that kind of harvest recorded in the bible. Back in Genesis chapter 26 regarding Isaac we read.

**Then Isaac sowed in that land, and reaped in the same year a hundredfold; and the LORD blessed him. (Genesis 26:12)**

This is of course an example of the Lord blessing His people. Isaac prospered because God favoured him. We also commonly see the idea of the harvest as an image for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For example in revelation 14 we read.

**And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crying with a loud voice to Him who sat on the cloud, “Thrust in Your sickle and reap, for the time has come for You to reap,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ripe.” (Revelation 14:15)**

So this idea of a bountiful harvest ties in with the arrival of the Kingdom in Christ. Let us read on.

마지막 씨앗 그룹은 성공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좋은 토양에 떨어지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출량을 비유의 일부로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건 중요하다. 이 그룹의 모든 종자는 작물을 생산했지만 모두가 같은 정도로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추수는 수확량 대 종자의 비율로 예수 시대에 측정되었습니다. 예레미아스는 다 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일곱 배 반 정도의 수확은 정상이었고 열 배의 수확은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수확은 비일상적일 것입니다. 100 배의 수확은 농부가 뿌린 것의 100 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그런 종류의 수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26 장에서 우리는 이삭에 관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해에 백 배나 거두니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창세기 26:12) 이것은 물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신 예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반적으로 수확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미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4 장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주의 낮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을 다 익었음으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계시록 14:15) 따라서 풍성한 수확에 대한 이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국의 도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 **9 And He said to them,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The Lord Jesus began this parable with a call for those around him to “listen.” He ends the parable here with a call to “hear” what has been said. To “listen” is to make a conscious effort to catch the words of the speaker. To “hear” is to have captured or remembered the words so that you can analyse the message.

The wording of this verse strongly implies that some can accept Jesus' words while others can't. This deafness to Jesus and the message He brings may be partial and temporary. But equally it may be long lasting. We know this from our own experiences of sharing the gospel. Some people are more receptive than others. Some sadly constantly reject us and forever remain hard hearted. Let us conclude our passage by looking at verses 10 to 12.

주 예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부르심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부름으로 여기에서 비유를 끝맺습니다. “듣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듣다”는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단어를 캡처하거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표현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귀머거리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거부하고 영원히 완고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10 절에서 12 절을 보며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10 But when He was alone, those around Him with the twelve asked Him about the parable.**

**11 And He said to them,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but to those who are outside, all things come in parables, 12 so that**

**‘Seeing they may see and not perceive,  
And hearing they may hear and not understand;  
Lest they should turn,  
And *their* sins be forgiven them.’ ”**

Later, when the crowds had departed and Jesus, His disciples and other followers were alone they came to Him to ask for an explanation. The spiritual meaning of the parable was not immediately apparent to these people. On a broader level they also wonder why Jesus had now altered His teaching style. Why is He now using parables rather than plain teaching? As a result of this they wanted Jesus to clearly explain to them what the parable meant.

Jesus tells them that as His specially chosen followers they are going to be let in on a secret or mystery. Today we typically think of a mystery as some kind of puzzle or riddle that we must work out. I'm a big fan of the Sherlock Holmes stories. In those stories Sherlock Holmes solves the mysteries using his deductive methods. But in the Bible, a mystery isn't something you can figure out or solve by yourself. A biblical mystery is something that you would not know unless God revealed it to you. This is what Jesus is telling this group. They are on the “inside.” As part of this inner group who have accepted His teaching they would receive new revelation involving the coming messianic Kingdom. Those on the “outside,” the scribes and Pharisees had rejected Christ and His teaching. They would have the revelation withheld from them. They would not have the Holy Spirit enabling them to understand the revelations delivered through the vehicle of the parables. The Lord Jesus then backs up His words by quoting from Isaiah 6:9. The context of this verse is that Isaiah should continue to preach even though the people are already hardened to his message. Like the sower who spreads seed on the hardened, rocky, and weed-infested soil as well as the fertile ground, Jesus continues to teach the crowds, even knowing they include many who will not accept what He says.

후에 우리가 떠나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이 예수께 와서 해명을 청했습니다.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즉시 명백하지 않았습니 다. 더 넓은 차원에서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왜 이제 그의 가르침 스타일을 바꾸셨는지 궁금해합니 다. 왜 그분은 지금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에게 특별히 선택된 추종자들이 비밀이나 신비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스터리를 우리가 풀어야 하는 일종의 퍼즐이나 수수께끼로 생각합니 다. 저는 설록 홈즈 이야기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설록 홈즈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여 미스터리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미스터리는 스스로 알아내거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비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 내부 그룹의 일부로서 그들은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유의 매개체를 통해 전달된 계 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이사야서 6 장 9 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비록 사람들이 이미 그 의 메시지에 완고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딱하고 바위가 많고 잡초가 무성한 땅과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 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The need to listen**

It's interesting that the Lord Jesus begins His parable with the call for His hearers to "listen."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annoys me about modern life is people's inability to listen or more broadly to pay attention. Today you are very fortunate if you have friends or family members who can give you their undivided attention. One of the reasons for our lack of attentiveness is the numerous distractions that surround us. Cell phones are designed to be addictive. When faced with either listening to someone speak or looking at your cell phone there is only ever one winner these days. It's a common sight to see a family sitting in a restaurant with every member of the family looking at their cell phone. Just a few years ago they would have been actually talking to one another!

It is a terrible tragedy that we do not take the time to really converse with people.

A true conversation is a two way process. It involves both giv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We tend to enjoy the giving part but not so much the receiving part.

It is even more tragic that the business and hustle of modern life also impacts our relationship with God. I think that just like with our earthly relationships we frequently neglect the spiritual relationship we have with God. Let me ask you a question. Do you take the time to listen to what He says? Or are you distracted by something else? Let us then be more deliberate in setting aside the time to enjoy a full and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주 예수께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듣"으라는 부르심으로 비유를 시작하신 것은 흥미롭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거나 더 광범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한결같은 관심을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당신은 매우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입니다. 휴대폰은 중독성이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즘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승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한 가족이 식당에 앉아 모든 가족 구성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실제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진정으로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양방향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주는 부분을 즐기는 경향이 있지만 받는 부분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와 바쁜 현대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나는 우리가 지상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자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시간을 내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그런 다음 시간을 따로 따로 떼어서 하느님과 충만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리도록 합시다.

**2 The need to sow**

I made the point during my sermon of noting the inefficiency of the farmers sowing. Of the seed he scatters 75% of the seed does not produce a crop. Farming is a difficult business. There are so many variables that a farmer has no control over that can impact the harvest. Will the plants get the right amount of rain and sun? Will pests or bugs decimate the plants? Farmers must hope and pray that God is gracious and allows them a good harvest. Even if 75% of the seeds are lost the farmer still can enjoy the yield from the 25% that did grow.

Now of course we recognise that Jesus is not teaching us a lesson on farming practices. One of the things I think we can take from this parable is the need to sow. By sow I am referring to our duty of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Our call to be workers in God's kingdom. Just like the farmer in the parable we can expect a great deal of failure. Many of the seeds we sow will not produce good results. But some will. If we are lazy and sow nothing then our return will be 25% of nothing. For those who are not mathematicians that equals nothing. So let us be good and diligent farmers. Let us go out into the world to sow the seeds of the gospel.

저는 설교 중에 농부들이 과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의 75%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수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적절한 양의 비와 태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해충이나 벌레가 식물을 죽일 것입니까?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수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종자의 75%가 손실되더라도 농부는 여전히 자란 25%의 수확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농사법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씨를 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는 우리의 부르심. 비유에 나오는 농부처럼 우리는 많은 실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많은 씨앗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아무 것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익은 무의 25%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같지 않은 수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됩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자.

